



MS, 윈도우 10 기반 기기에 TPM 2.0 의무화, 제조업체 부담

- 윈도우 10의 보안 강화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(MS)의 새로운 정책이 PC, 태블릿,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
 - MS는 윈도우 10를 탑재해 출시되는 대부분의 장치에 대해 2016년 7월 28일 이후에는 하드웨어 기반 보안 레이어인 “TPM(Trusted Platform Module) 2.0” 포함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고 밝힘
 - 이에 따라 PC, 태블릿,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자사 제품에 TPM 2.0을 의무 탑재하지 않으면 제품을 출시할 수 없게 됨
 - TPM은 기업용 PC에서는 오래 전부터 탑재되어 있던 기능이며, TPM 2.0은 신뢰할 수 있는 컨테이너에 암호화된 키값을 저장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하드웨어 레이어를 제공함
 - MS는 지난 4월 6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TPM의 필수 요건화가 “윈도 하드웨어 인증 프로그램”을 통해 강제 시행될 것이라 밝혔음
 - 하드웨어 제조업체는 칩 또는 펌웨어 형태로 TPM 2.0을 구현하고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로 제품을 출하해야 하며, 사용자가 TPM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
 - TPM 도입이 의무화되면, 윈도우 10 기반의 PC나 응용 프로그램, 웹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의 사용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
 - 예를 들어, 사용자 인증 시에 TPM 칩의 암호화 키 외에 얼굴 인식, 지문 인식, 홍채 인식을 이용하는 생체 인증 기술인 “윈도 헬로(Windows Hello)”가 함께 사용될 수도 있음
- MS는 지난 3월 말 열린 “UEFI PlugFest” 컨퍼런스에서 이미 TPM 2.0이 향후 윈도우 10의 진화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

*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(☎ 042-612-8296)과 최신 ICT 이슈 컬럼니스트 박종훈 집필위원(soma0722@naver.com ☎ 02-739-630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.

- TPM 2.0은 오래된 TPM 1.2에는 없는 중요한 보안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, 기업용 최신 노트북이나 2-in-1 태블릿 중 인텔 칩을 채택한 기종 중에는 이미 TPM 2.0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많음
- 반면,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윈도우 노트북 가운데에는 TPM 1.2를 탑재하고 있는 기종도 있으며, 저가의 컴퓨터는 TPM을 탑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앞으로는 MS의 새로운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
- 그러나 “윈도우 10 IoT 코어(Windows 10 IoT Core)”가 탑재되는 라즈베리파이(Raspberry Pi) 3와 같은 기기는 TPM 2.0 탑재가 필수 요건은 아니며, 윈도우 10 IoT 코어는 PC용 윈도우 10에서 기능을 축소한 버전임
- 이번 MS의 정책은 PC를 보다 안전한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현재 윈도우는 운영체제 중에서 보안 수준이 가장 낮은 OS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

(PCWorld, 4. 13. & TechRadar, 4. 14.)